

INTERVIEW

한국오리협회의 구심점, 전국 지회장을 만나다

우리협회는 지난 2월 8일 제10대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한국오리협회 새 집행부의 힘찬 출항을 알렸다. 협회는 한국오리협회장, 각 분과 부회장 선출을 끝내고 각 지회·지부의 결성을 새로이 하여 대의원 등록까지 마쳐 현재 한국오리협회 제10대 임원진이 완벽히 구성됐다. 하여, 월간 오리마을 5월호 오리데이 특집을 맞아 협회와 회원의 구심점이 되어줄 전국 지회의 지회장을 만나 지회소개와 활성화방안, 포부 등을 들어보았다.



〈광주 · 전남도지회 마광하 지회장〉

지회장이 된 소감

저는 그간 영암군지부와 광주 · 전남 도지회 총무 일을 해왔습니다. 지부와 지회장님을 보필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지회장이라는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에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본 지회장의 자리란 결코 빛나는 자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오리협회는 1992년 설립이 되어 올해로 2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그간 대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겠지만 타 축종에 비하면 그 역사도 아주 짧습니다. 이제야 골조를 겨우 갖춘 건축물이라 비유를 하면 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안에 어떤 장식과 무늬로 색칠을 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은 지회장의 자리와 역할이 화려한 빛깔을 내기보다는 열심히 일해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과연 임기동안 얼마만큼이나 나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

반문해 보기도 한답 니다.

우리지회는

지회사무소는 영암군 영암읍역리155-1에 있으며, 전화는 061)472-5241입니다.(e-mail:sbyg5252@naver.com). 설립연도는 1998년 초대 이덕행지회장님과 주찬형총무님을 중심으로 현재는 6대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직은 광주시를 포함한 23개 시·군중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18개 시·군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회원관리,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 오리고기홍보 및 판촉행사, 방역위생관련대책 및 생산성향상교육, 자조금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사육규모 역시 오리산업의 생산량 50% 이상을 차지, 전국 1위이며, 도압 및 가공시설 역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오리산업의 메카입니다.

지회활성화 방안

특별한 재정 없이 지회를 꾸려 나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따릅니다만, 거기에 지회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도 지회장으로써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라 하겠지요.

오리협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회원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입니다.

각자의 회원들이 동참해서 무엇인가를 얻어갈 수 있도록 대정부나 도 차원에서의 정책이 각자의 사업장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리산업발전이라는 공동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숫적으로 열세인 우리들에게 오로지 단결만이 생존의 법칙이라 생각하시고 그간 협회를 못미더워 생각 하고 계신 오리종사자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과거사는 모두

접어두시고 많은 회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지회의 문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적극 참여하시어 한목소리를 낸다면 우리들의 저력은 아주 막강한 단체로 새롭게 태어날 거라는 걸 믿습니다.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

남은 3년 동안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 임의자조금제도에서 의무자조금제도로에 전환**
협회의 현안 추진 사업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사육농가도 출하수당 일정금액을 거출하는 것으로 정하여 사육농가에도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임승차자 없이 모두가 참여토록 하여 AI, FTA 등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해서 오리산업전반에 신바람을 불고 싶습니다.

- **오리전문 연구소 설립(오리가공및생산) 또는 현 정부의 연구기관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여 연구를 전담**

생산자 조직 내 후진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구된 기술을 사업장 및 농가에 보급하여 보다 양질의 기술로 안정적인 오리가공 및 생산하여야 합니다.

- **다양화된 협의체 결성**

선진화된 다른 나라들의 사업형태나 타축종에 비하여 우리 업계의 생산자 조직은 너무나도 단조롭습니다. 생산자 협의체를 통하여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자세가 이제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18개 시군지부 친목강화 및 권익보호**

- **판촉 및 홍보**

앞으로의 포부

정부에서 주도한 틀에 짜인 정책에 따라가기보다

는 오리업계에 정말로 필요한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할 것이며, 오리산업의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는 협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북도지회 배종율 지회장〉

지회장이 된 소감

지난 9대에 고창지부장을 지내고 올해 새롭게 10대 임원을 선출하면서 전북지회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한 지부를 이끌 던 때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황 속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북지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지회는

전북지회는 정읍, 남원, 김제, 고창, 순창, 부안(종포)등 6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북에는 오리협회 회원 기준으로 오리 도압장 2개소, 부화장 2개소가 있으며, 사육은 110여 농가가 있습니다. 전북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리산업

의 규모가 큰 지역이며, 생산 또한 매년 성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북지회는 지금은 지부간의 활동과 소통이 미약하지만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는 전북 오리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지회활성화 방안

고창지부장을 역임할 당시 전북지회의 양분화로 김학영지회장님이 힘들어 하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왔습니다.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 하셨지만 한계에 부딪혀 힘들어하셨죠. 지회를 활성화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하여 지회를 활성화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임기동안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역량은 한 없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오리산업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있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지회를 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 회원여러분이 적극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전북지회는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고 상생하여 지금의 불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

최우선적인 과제라기보다는 우리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리산업은 급격한 성장을 하였지만 국내 실정에 맞는 사육 매뉴얼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9월경 매뉴얼이 나올 것으로 예정돼 다행입니다만 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 너무 늦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리사육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우수한 사양관리자가 체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산업의 고급화를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제품을 축산시장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리고

기가 비싸다는 인식에 비해 오리요리 고급화 인식은 덜한 것 같습니다. 오리도 가슴살스테이크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 고급화전략을 써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지회 정기현 지회장〉

지회장이 된 소감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충북지회장으로 선출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오리협회 충북지회 결성 이후, 열과 성의로 이끌어 주신 많은 고문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충북지회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보다는 회원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실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지회는

충북지회는 지회장과 총무 즉 임원을 중심으로 청원, 충주, 음성, 진천 4개의 지부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사육, 부화, 계열·유통까지 약 120명 내외지만, 9대 협회 이사과 음성군지부장을 지내며 바라본 충북지회는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이

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이 8년간 청정지역으로 유지돼 온 것은 우리 농가들이 하나로 단합된 속에서 차단방역이면 방역, 사육환경이면 환경 등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단합된 힘에는 협회 임원으로서 발 벗고 나서 준 정연우 지회장과 마낙중 총무의 노고가 서려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임원들이 그동안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더욱 단합할 수 있도록 견인자 역할을 잘 수행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충북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회활성화 방안

회비납부와 오리자조금 활성화를 하고 싶습니다. 오리산업은 임의 자조금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낸 만큼 협회의 사업이 운영되게 되어있습니다. 자조금은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비촉진 홍보사업과 교육 및 조사·연구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의무자조금인 양돈, 한우의 경우 자조금의 성공 사례로도 꼽힐 만큼 자조금의 성과는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회비거출에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회원들의 회비를 각 군지부장 책임 하에 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지회에서 중앙회로 올라가는 체제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회비의 일부는 지회교부금으로 내려지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는 자조금으로 쓰입니다. 회원들이 회비를 냄으로써 권리를 다했을 때 각 지회가 발전할 것이고, 자조금 사업에도 동참하면서 책임감은 물론 협회의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자조금의 의미와 쓰임 등 회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생각입니다.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

앞으로 임기동안 최우선으로 두어야할 중점은 회

원들 간 화합과 단결, 그리고 권익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도지회와 시군지부를 더욱 활성화 시켜 충북 오리농가들이 더욱 단합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의 포부

포부이기보다는 바람이 더 맞을 것 같네요. 충북에서 오리농장을 경영하고 또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가 지금처럼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북도는 8년 연속 AI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축산농가들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중요합니다. 각 시군지부를 활성화하고 도지회의 모임을 정례화를 통해 '자가방역'이 최우선이라는 의식을 고취, 홍보활동에 전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회 송종하 지회장〉

지회장이 된 소감

협회 초창기에 경기지회장을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오리가 기타가축으로 분류되어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적은 축종이었습니다. 협회 기반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죠. 오리산업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면서 과도

기에 접어든 지금, 지회장을 맡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협회가 오리산업의 발전과 함께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지회는

경기지회는 몇 년 동안 지회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회원들이 의기투합하여 지난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 결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소규모지만 2012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회원들끼리 더욱 단합하여 더욱 힘 있는 지회가 되도록 지회장으로써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8일 개최한 총회에서는 경기도 남 북 지회를 통합하기로 하고, 경기남부 부지회장으로 장동익 씨를 선출하였습니다. 경기지회가 새롭게 개편된 만큼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회활성화 방안

우선 금년도부터 경기남·북지회를 통합하였으니, 단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회모임을 자주 결성해 회원들 간 결속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소통을 위해 회원들과 연락을 자주 취할 생각입니다.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신속하게 알려 협회가 산업을 위해 다각적인 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인식시켜주고, 회원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협회에 알리고, 회원과 협회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활성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인 과제

오리산업의 제도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협회가 잘 해오고 있고, 우리 회원들도 의기투합하여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지

회장으로써 제가 해야할 우선적인 과제로는 사육 농가들의 인식의 전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원유치를 위해 농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아직도 많은 농가들이 협회 회원이 되면 '과연 내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협회의 활동을 제대로 알려 협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바로 설수 있도록 열심히 선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포부

앞으로 우리 경기지회를 어느 지회보다 단합이 잘 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회원들이 지회장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회에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남지회 한임근 지회장〉

지회장이 된 소감

예기치 않게 지회장을 맡게 돼 기쁜 마음보다는 무거운 마음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런 바탕도 없는 영남지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향

으로 꾸려나가야 하는지 임원 및 회원들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대 지회장을 맡은 만큼 밑그림을 잘 그려놓아야 영남지회가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지회는

지난 3월 29일 영남지회를 처음 결성하고 임원선출을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영남 지회는 45여 명으로 구성됐지만, 지회 회원확대를 위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0여 명 정도가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지금도 영남지회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남은 현재 남부지역에는 진주시, 하동군, 고성군, 창녕군 등 20여 농가로 구성되어 있고, 북부지역에는 거창군을 중심으로 50여 농가 이상이 구성돼있는 실정입니다.

지회활성화 방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부 결성과 지부 활성화가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지회의 존재감 확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영남지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일이 제 임기동안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인만큼 미비한 점도 많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협회 회원분들의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포부

61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의 제게 지회장의 자리를 믿고 맡겨 주신 것은 제가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닦아온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회를 활성화 하라는 회원들의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지회활성화를 통하여 협회와 지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이 회원들의 안정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고 싶습니다.